

사 람 사 랑

회원통신 제76호(2001/4/21)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유(有)구(口)

무(無)언(言)

사람답게 살 권리도, 일할 권리도,
말하고 표현할 권리도 빼앗긴
대우자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사발나발' 뒷이야기(1)

사발나발에 오셨던 많은 분들께

나이희선 [꿈꾸는 사람들] 회원

'사발나발'이 벌써 약 한 달 전 일이군요. 시간 참 빠르기도 하지..

[꿈꾸는 사람들](이하 꿈사)을 아시나요? '사발나발' 때 잠깐 소개도 드렸는데요. 네, 인권운동사랑방 후원회원 모임입니다. 이번 '사발나발' 행사 준비에는 꿈사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또다른 후원회원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기대도 컸고 그만큼 자원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번 행사 이름 정하던 자리가 생각납니다. 사랑방 한마당, 사랑방 큰잔치 등등.. 사랑방 무침은 어떠한 재미있는 의견도 있었어요. '탈'이라는 사랑방 근처 술집에서 이름을 정했는데 거기 메뉴에 무슨무슨 무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류은숙 님(사랑방 사무국장)의 의견이 호응을 얻어 '사발나발'로 정해진 거죠. '사랑방의 발전은 나의 발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데,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더 좋은 뜻을 붙일 수도 있겠죠.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보통 사랑방 사람들이 술 마실 때 건배하면서 외치는 구호라고도 합니다. (과연?)

저는 영상 메시지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캠코더를 만져보는 거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징징 짜며 슬금슬금 인권영화제 팀에 일을 떠넘기려고도 해봤으나 절대 안 넘어가시더군요. 아무튼 전문가라면 하루이틀이면 끝낼 분량을 2주일 정도 걸쳐 사랑방과 인권운동연구소를 오가며 겨우겨우 카메라에 담았고, 감옥 팀의 유해정 님과 [푸른영상]의 남택진 님의 도움(이라기보다 작업)을 얻어 약 8분 정도의 영상물을 얻게 됐죠. (편집 시간: 11시간. ^^;;;;;;) 사발나발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목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됐죠. 나중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시간이 짧아 재밌는 장면들이 좀 빠졌는데, 저 개인적으로 서준식 선생님이 카메라 보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빠진 걸 제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하..

'사발나발'에 대한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만큼 사랑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의견도 듣고, 함께 노래 / 율동 / 힙합 댄스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한데 어울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애초 그 이상의 의도는 없었던 만큼 어찌 보면 100% 기획 취지를 살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젠 꿈사에서 진행된 행사 평가 자리에서도 나온 얘긴데, 인권운동 또 사랑방의 활동, 운영 등등에 대해선 그다지 논의할 기회가 없어 좀 아쉬웠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축제 비슷한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원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1년에 한두 번 있을 이런 자리 이외에도 후원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더 특정한 기획 모임을 정기 또 간헐적으로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 혹은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사랑방 홈페이지에 들려 개진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후원회원의 상은 이렇습니다. 후원이란 게 결국 사랑방의 많은 인권 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각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위를 할 때 필요한 피켓을 제작한다거나 스티커를 만

들어 배포한다거나 인권교육 영상물을 전국 학교 혹은 관공서 등에 배포한다던지, 다 돈이 필요한 일 아십니까? 전 어디에서건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 시행되지 못 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구요. 정기적으로 후원(자동이체)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질수록 인권운동은 좀더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후원회원들이 소식지, 웹 게시판,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인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가 사랑방에 어떤 일손이 긴급히 필요할 때라든지 사이버 시위를 한다든지 할 때 서로서로 공지해가며 시간 되는 분들끼리 그때그때 함께 한다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폼사 같은 후원회원들간 소그룹(동아리)이 각자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활성화된다면 더 좋겠죠. 이전 대학생 인권 동아리들에게 특히 바라는 바입니다. 좁은 대학 내에만 있지 말구요.

그렇게 해서 사랑방 상임 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 사랑방에 출근하는 자원활동가들(파트 타임 활동가??), 그리고 후원회원들(또 소그룹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좀더 알찬 활동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후원회원의 지위에 있어서 그런지 후원회원들의 역할에 좀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하하..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전 후원회원 각자가 낼 수 있는 힘은 비록 아주 작을 망정 그 힘들이 한데 크게 모이면 아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딱히 별 소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발나발' 때 본 많은 분들 그리고 비록 그 자리에 오시진 못 했지만 멀리서 맘속으로나마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발나발' 뒷이야기 (2)

동네잔치 같았던 모임

이지연 (인권운동사랑방 후원회원)

인권운동사랑방 회원들의 치열한 투쟁과 이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는 열린 활동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랑방의 소박하고 활기찬 기운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것 같습니다. 소외와 억압을 받고 있는 나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명확히 제기하고 같이 싸워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처음의 어색함이 만남의 자리에서는 곧 즐겁게 어우러졌어요. 다과를 먹으며 단편영화를 감상하고 한 박자 느리게 추는 사람도 포함된 힙합단원들의 춤과 서울대 노래패들의 멋진 노래.. 폼사의 몸동작.. 그냥 한마음이 되도록 만들더군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교집스럽게 약자지결한 분위기도 아닌 좋은 뜻을 성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같이..

사랑방 회원들은 서로가 몹시 친한 것 같았습니다. 후원회원들은 조로 나누어 인사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하에 전지를 채우는 작업도 하였어요. 시간이 길었더라면 뭔가 더 멋있는 게 나올 것 같았는데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품고 있을테니까요. 학생들의 권리를 찾고자 농성하는 중고등부학생들도 뒷풀이 자리에 참석해 가득히 메워졌는데 그중의 한 학생이 나서서 악기를 즉흥연주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그럴 테지요. 저도 후원회원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그맣게라도 참여하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교육활동가 전략회의 참가 보고

치앙마이에 다녀왔습니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ARRC(아시아지역인권교육자원센터) 주최로 아시아지역 인권교육활동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10여개국 3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사랑방 인권교육실도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원래 1명만 초청을 받았으나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인권교육실 활동가 한명을 더 보내기로 결정해 류은숙, 고근에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ARRC와 사랑방 인권교육실은 인연이 깊습니다. 앞서 95년 방콕에서 열린 1차 회의 때 접한 인권교육 교재와 방법론은 인권교육에 눈을 뜬 기회가 되었고,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에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 아시아지역 아동 인권 그림 경연대회'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6년만에 열린 이번 2차 회의에서 사랑방 인권교육실은 첫날 발표를 통해 '인권교육길잡이' 출간, 인권캠프 개최 등 그간 해왔던 인권교육사업을 소개하였고, 인권교육을 실천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장애요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즉, 일회성 교육이 대부분인지라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기 어려운 점, 참여자의 수준과 발전에 따른 단계별 학습을 계획하지 못하는 점, 참여 중심적인 교육방법론이 프로그램의 도입부에만 집중돼 있고 후반부에는 약화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계획으로 커리큘럼 마련, 6개월 내지 1년간 지속되는 장기 프로그램의 실험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는 선주민과 지역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 연극기법을 이용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도입 사례 등이 눈길을 끌었고, ARRC는 프로그램 실습을 중심으로 한 또 한차례의 워크샵을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악지대 소수종족의 슬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산악지대인 치앙마이의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국색을 띤 숲과 나무, 소처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산 속의 코끼리를 보며 더위와 건기에 바짝 마른 사물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또한 시민권도, 땅에 대한 소유권도 갖지 못한 소수 종족들이 연 바자회를 방문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용품, 음식과 옷가지 등을 접했습니다. 덤으로, 싸다 못해 거저나 다름없는 쇼핑을 즐겼습니다. 마침 사랑방과 오랜 친분이 있는 태국인 핼(Pim)씨가 치앙마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유익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버마 난민과 소수 종족 문제를 위해 일하는 핼씨는 이주노동, 난민촌, 섹스산업과 인신매매, 에이즈 등 버마인과 소수 종족이 처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자연 속에 숨겨 있는 슬픈 일상들이었습니다.

사/업/보/고

(2001년 3월 넷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인권교육실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교칙분석 모임이 4월 19일 처음 열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교칙분석 영역과 캠페인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일단 분석 모임은 7월 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에 결과를 발표한 뒤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칙분석 위원으로는 강경선 교수(방송대),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24일에 진행된 명동거리 캠페인은 중고등학생연합 회원들과 거리를 지나는 청소년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_^)에 마쳤습니다. 2차 거리캠페인은 4월 21일(토) 오후 3시 노원역(7호선)에서 있습니다.

■ 일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모임 ‘야호’

그간 <청소년 노동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모임이 드디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야호’입니다. 청소년들의 반가운 외침을 뜻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고근에 anti4@chollian.net)

그리고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단을 나눠주고 명함을 건네는 것도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야 했고, 청소년들의 분위기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의 힘든 아르바이트가 생활의 일

부, 즐기는 생활(?)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에 조금 더 일반적인 일터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2001 어린이 인권캠프

- 8월 8일-10일 / 경기도 양평
- 대상 : 초등학교 4-6년
- 접수 : 선착순 30명
- 문의 : 인권교육실

인권정보자료실

■ 자료묶음집 제공합니다 ■

자료수집 팀(백영선, 백은관)이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네가지 자료묶음을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징병제 반대 자료묶음** : ①군대폭력과 군의문사 ②여성, 장애우와 징병제 - 군가산점을 중심으로 ③대한민국 징병제, 또 하나의 폭력 ④한국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⑤한국의 병역, 군사제도 변혁에 희망이 있다 ⑥징병제 폐지론 ⑦외국의 징병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⑧군축문제에 대한 토론 - 유럽제국

의 병역제도 전환 추세 ⑨징병제 기사

▲양심적인 병역거부 자료묶음 : ①대만의 대체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②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소개 ③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④양심적인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위원회의 중요 결의안 ⑤양심적인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지침 ⑥관련기사 모음

▲유전정보와 인권 : ①인권의 시각에서 본 과학기술 ②유전정보와 관련하여 검찰청-범죄수사용 유전정보은행 구축 / 보건복지부-유전정보를 통해 미아찾기운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③ 민간단체들의 대응과 활약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 폭력 진압 및 조합원에 대한 성희롱, 노동조합의 쟁의 및 파업 관련 자료 모음집 1,2

▲홍석천 씨 커밍아웃 관련 자료묶음 : ①홍석천 씨 인터뷰 모음 ②인권, 사회단체의 공식입장과 성명서 ③관련 기사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에 한글자료 중 남한인권 90여권 자료목록과 영문자료 중 시민·정치적 권리 100여권의 자료목록을 등록시켰습니다.

자유권위원회

■ 국보법투쟁, 전열정비 ■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 결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올해 상반기중 법개정을 공언하고 있는 집권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처를 꾸리고 상황실을 개소했으며, 중심일꾼들이 내부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이

며, 공동집행위원장단도 정비되어 정기 회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고민 ■

이른바 '징병기피 사이트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가칭)징병제를생각하는모임'이 5월말 예정으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 모색 공개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징병제에 대한 대응문제를 고민하면서, 워크숍 준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대우차 경찰만행 공동대응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사태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국내 19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9일 인권단체 공동집회를 갖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감옥의 인권

■ 의정부 사건, 새 증언 나와 ■

지난해 말 발생한 의정부교도소 노역수 황영환 씨 사망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3월 중순경 교도소문제를 주제로 다룬 경인방송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황씨 사건이 소개됐으며 이를 본 출소자 박아무개 씨가 새로운 증언을 위해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박씨는 "황씨가 동료재소자의 폭행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쳤으며 이를 교도관들이 방치했고, 은몸의 명은 사고 하루전 경비교도대에 얻어맞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측은 황씨가 지병에 의해 사망

했으며 구타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박씨의 증언은 이를 전면 뒤집는 것입니다. 황씨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동료 재소자는 황씨 사망후 벌금을 내고 출소한 상태며 검찰 등은 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황씨의 유가족은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교도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도소측은 자체 수사를 두달 이상 끌어왔으며 황씨의 죽음과 관련해 50여명의 직원 및 재소자의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모두 조작된 사실이며 교도소의 전현직 직원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영환 씨 사망당시의 의정부교도소 소장 김광웅씨는 사건발생 10일 후 법무부 장관에게서 녹조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그 후 천안소년교도소로 전출 갔습니다.

■ 일기장 압수한 광주교도소 ■

3월 15일 광주에서 출소한 박아무개 씨가 출소당시 교도관으로부터 일기장을 압수 당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측은 허가받지 않은 집필이라며 압수사유를 밝혔으나 박씨는 "검방 때 교도관들이 일기장을 읽고 한번도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은 일기장 작성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광주교도소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광주교도소는 이미 일기장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비위고발 재소자 이감당해 ■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직폭력배들이 핸드폰을 사용해 조직관리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폭력배와 일부교도관의 비위행위를 보안과와 소

장 등에게 최초로 제보했던 신아무개 씨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이유로 징벌을 살다가 전주교도소를 이감됐다고 합니다. 원래 지병치료를 위해 광주에서 안양으로 이감됐던 신씨는 제보 후 징벌을 받고 식이요법을 위한 구매 등도 불허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으나 서신 및 청원 등이 모두 불허됐다고 합니다.

사회권위원회

■ 이주영씨, 제네바 파견 ■

길고 긴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사회권 반박 보고서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노동, 여성, 사회복지, 건강, 이주노동자,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만드느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완성되니 뿌듯하네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사회권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서를 잘 활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회권위원회 이주영씨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제네바에 체류하는 동안, 위원들에게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생생하게 알리겠습니다. IMF 영향 하에 이뤄진 구조조정 정책이 어떻게 한국의 사회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지, 비정규직 노동자, 단결권, 이주노동자,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빈곤, 장애인의 이동권,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등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의 문제도 국제적인 비난을 살 것입니다.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과정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할 땐 꼭 짚고 가겠습니다. 지구 저 반대편의 이런 활동들이 국내에서 벌어질 투쟁들과 어우러져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조약해설서 팀 세미나 열중 ■

3월 29일 사회권위원회 상임활동가 회의에서 사회권조약해설서 작업을 2001년 사회권 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또한 조약해설서팀은 사회권 조약 중 실제조항을 우선적으로 세미나한 후 사회권위원회 상임활동가 회의와 사회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회권조약해설서 연구 결과물은 원고의 내용을 보고 출판물로 출간할 지 자료집으로 묶을 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사회권조약해설서 팀은 2조 국가의 이행의무, 반차별, 3조 남녀평등, 11조 적정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을 받을 권리에 대해 뼈대있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

사/랑/방/동/정

=====

■ 경찰에 폭행당하고 구속됐던 정원철씨

사랑방 정기후원자인 정원철(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씨가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 31일 종묘에서 열린 민중대회 참가 후, 동료노동자가 연행되는 것에 항의하다 같이 연행된 정원철 씨는 남대문경찰서 내에서 경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인권하루소식 4월 3일자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정원철 씨가 폭행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되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 4월 2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석방을 결정해 정원철

씨는 20일만에 우리 품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정원철 씨는 석방 후 “경찰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내에서 집단폭행을 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것은 힘없는 시민들에게 군림하려는 사고가 여전히 배어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인권유린 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권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실천들을 주위의 작은 일로부터 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 ‘사발나발’ 성평리에 마쳤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후 처음으로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 후원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던 ‘사발나발’ 행사가 잘 치러졌습니다.

3월 24일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열린 ‘사발나발’ 행사는 이동수 님(인권운동사랑방 만평 작가)의 재치있는 사회 아래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방 회원모임인 ‘꿈꾸는 사람들’ 성원들의 율동(한달 이상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힙합댄스 공연,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공연의 ‘맛’은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꿈꾸는 사람들의 나이희선 씨가 직접 ‘사랑방의 일상’을 촬영해 편집한 영상물 상영에 가장 큰 관심과 박수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이날은 또 사랑방의 활동내용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5·5 인권영화제’(뒤에 상영작 목록)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었고, 대우자동차 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 이후엔 명동의 한 주막에서 뒷풀이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분들은 함께 서오름의 ‘두부마을’에서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봉박두] 5.5 인권영화제

-다시 보는 명작선-

2001.5.18 - 5.23 아트큐브

싱그러운 생명의 꽃, 인권영화제가 5월 18일(금) 아트큐브에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인권영화제’ 개최시기를 늦가을에서 봄으로 공식 조정합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의 불변의 법칙 ‘무료 상영 원칙’은 그대로 지킵니다.

5회에서 6회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교정에서 도심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5.5 인권영화제’와 함께 ‘5년 동안 곳곳이 살아남은’ 인권영화제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6회 인권영화제는 2002년 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보는 명작선

[칠레전투]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 볼리비아 일기] [쇼아] 등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천하는 ‘명작’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기작’, 그리고 [열대야] [인간의 시간] 등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상영합니다.

[상영작 목록]

- 1) **유령을 부르며** 60분/ 1995/ 맨디 체이콥스&카멘 켈린칙/ 미국
- 2) **미국의 꿈 (American Dream)** 100분/ 1989/ 바바라 코플/ 미국
 ♠ 91년 아카데미 장편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 3) **배신의 시간 속에서 (La Flaca Alejandra)**
 60분/ 1994/ 카르멘 카스틸로&가이 지파르트/ 칠레
- 4)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110분/ 1996/ 릭 골드&스미스/ 미국
- 5) **하비 밀크의 시대** 87분/ 1984/ 로버트 앵스타인&하비 피어스타인/ 미국
 ♠ 85년 아카데미 장편다큐멘터리부문 수상작
- 6) **쇼아 (Shoah)** 545분/ 1985/ 끌로드 란쯔만/ 프랑스
 ♠ 86년 베를린영화제 칼리加里상 수상
- 7)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しがらきから吹いてくる風)**
 91분/ 1991/ 니시야마 마사히로/ 미국
- 8) **전투 지대** 75분/ 1997/ 매기 해들리&웨스트/ 미국&독일
- 9) **날 놓아줘 (Let me go)** 96분/ 1996/ 안 클레르 푸와리에/ 캐나다
- 10) **레지스탕스** 156분/ 1997/ 캐서린 킨/ 아이티&미국
- 11) **칠레 전투 (Battle of Chile)** 264분/ 1978/ 파트리시오 구즈만/ 칠레
- 12)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58분/ 1997/ 파트리시오 구즈만/ 칠레

- 13)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115분/ 1997/ 리류리/ 미국
- 14) 모락 당한 나의 이름 60분/ 1998/ 알렉산드라 아이슬리스/ 미국
- 15) 열대야 195분/ 1999/ 이근호/ 한국
- 16)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94분/ 1996/ 리차드 던도스위스/스위스
- 17)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 94분/ 1954/ 허버트 비버만/ 미국
- 18) 처벌에 맞춘 범죄 46분/ 1982/ 바바라 모스&스테판 마크/ 미국
- 19) 스코츠보로 : 미국의 비극 84분/ 2000/ 다니엘 앤커&바락 굿맨/ 미국
- 20) 인간의 시간 116분/ 2000/ 태준식/ 한국

■ 이슈 커스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간의 분쟁에 대한 성찰(가제)

21세기에도 총성과 죽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땅 -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역사와 현실을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로 조명합니다.

[상영작 목록]

- 1) 세 개의 보석이야기 (Tale of the three Jewels)
106분/ 1995/ 미셸 클레이퍼/ 팔레스타인&프랑스
- 2)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Palestine story of land) (2)
60분/ 1993/ 시몬느 비통/ 프랑스
- 3) 119발의 총성 + 3 (119 Bullets + Three)
60분/ 1995/ 예우드 레바논&아미트 고렌
- 4) 나지 알 알리 (Naji Al-Ali an artist a vision)
52분/ 1999/ 카심 아비드/ 영국
- 5) 귀환 없는 평화? (Peace with no Return?)
61분/ 1995/ 엘 시반/ 팔레스타인
- 6) 정착민들 (Settlers) 62분/ 2000/ 샌 맥켈리스터/ 영국
- 7) 기억의 노예 (Izkor slaves of memory)
97분/ 1997/ 엘 시반/ 이스라엘&프랑스
- 8) 필드 다이어리 (Field diary) 83분/ 1982/ 아모스 기타이
- 9) 군인일기 (A soldier's diary) 47분/ 1991/ 기돈 기타이
- 10) 평화의 가장 자리에서 (Eage of Peace)
103분/ 1995/ 일란지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11) 록, 종이, 미사일 (Rock, Paper, Missile)
16분/ 2001/ 페이퍼 타이거/ 미국

■ 한국영화 출품 공고 및 '인권영화상'

올해 상영된 작품은 2002년 제6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이 됩니다.

2001년 3월 회계 보고

(2001년 3월 17일 - 2001년 4월 16일)

이월금 : 435,994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2,717,960원	사업비	1,815,260원
-하루소식	2,185,550원	-하루소식 발송	91,570원
구독료(116)	1,761,760	-하루소식 우편복사	129,840원
기사배급	423,790	-자료제본 및 구입	42,350원
-간행물 판매	139,220원	-인권교육실 출장	600,000원
국가보안법보고서	1권	-인권캠프장 예약	200,000원
인권교육길잡이	1권	-자유권위(감옥사업)	187,350원
인간답게 살권리	2권	-사람사랑 제작 및 발송	128,400원
하루소식 합본호	10권	-월레포럼 강연료	100,000원
한국감옥의 현실	1권	-‘사발나발’ 행사	326,250원
불심검문자료집	2권	-기타사업비	9,500원
-자료제공비	100,390원	활동비	4,900,000원
-강연료	292,800원	사무실유지비	949,110원
후원금	3,906,010원	통신비	1,033,760원
-정기후원(167)	3,856,010원	사무비품	304,000원
-특별후원	50,000원	사무국 식비	454,760원
상임활동가 기여금	970,000원	생활비	65,160원
차입금	1,500,000원	기타	103,500원
기타	166,435원	-활동가 명함 제작	30,000원
-사무국팩스 대여료	160,000원	-난방비	23,500원
-은행이자	6,435원	-경조사비	50,000원
총수입:	9,260,405원	총지출:	9,625,550원
잔액:	70,749원		
부채:	1,500,000원		

특별사업기금 지출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800,000원
- 잔액 : 3,680,810

이 기금은 불심검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분들의 승소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사랑방이 진행하는 특별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001년 3월 재정 세부사항>

- 4월 월례포럼(의문사진상규명)에 발제자로 참여했던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께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 인권교육실 류은숙, 고근예씨의 태국출장에 사무국에서 항공료를 부담했습니다.
- 재소자 인권을 담당하는 감옥사업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출액의 대부분은 각 지방 교도소를 다녀오는 데 소요된 출장비입니다.
- ‘사발나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점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대여를 비롯해 안내장 발송, 행사비품 준비, 뒷풀이 등에 92만여원이 들었고, 행사 지원금 및 뒷풀이 비용으로 60만원 정도가 모여 총 32만여원의 부담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 인권교육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특별사업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거리 캠페인 행사 뿐 아니라, 스티커 배포, 교칙자료 집 제작 등으로 기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상임활동가 김일숙 씨가 오빠와 헤어져 살게 됐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한 거죠.^^ 사랑방에서 조그만 정성을 보냈습니다.

<3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순, 4/16까지의 집계입니다)

